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나’의 관계 양상 연구

채 희 영*

요약

박완서는 『나무』(1970)으로 등단하여 『엄마의 말뚝』 연작까지 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이다. 박완서 작품의 변모 양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서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의 작품 경향은 자기 경험이 소설로 발전된 자전적 소설을 일관되게 지향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등단 후 작가가 줄곧 써오던 자전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쓰여진 『도시의 흥년』(1979)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파행적 근대성과 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족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도시의 흥년』의 주제 의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 ‘나’라는 작중 화자인 점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그런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주변인물들과의 비관적 관계 맺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시의 흥년』의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기존 자전적 소설에서의 ‘나’와는 다른 성격의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집안의 막내로서 ‘나’의 가족은 물론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도시의 흥년』에 나오는 속물적 인물에 대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작중 현실을 살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러한 '나'는 '나'와의 영향관계에 놓여 있는 주변인물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들과는 다른 성향의 삶을 지향해 나간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도를 찾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품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형으로서 이중적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한 존재방식으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껏 누리 왔던 무위적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자립의 한 형태로써 남자 친구인 구주현과 그의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향이라는 농촌의 푸근함은 도시의 속물적 현실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작중 화자 '나', 이중적 존재방식, 비판적 관계맺기, 라캉, 욕망, 자립

목차

1. 서론
2.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
3. '나'와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
4. 결론

1. 서론

박완서는 『나목』(1970)으로 등단하여 「엄마의 말뚝」 연작까지 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이다. 일제시대에서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1960, 70년대의 산업화 시대를 있고 있는 그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의 체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하였지만 “수준작이건 타작이건

간에 기를 쓰고 그 시대를 증언한 흔적을 읽는 것도 나로서는 흥미로운 일이었다.”¹⁾라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글쓰기는 우리 근대사의 참혹함과 냉혹함을 동시에 이겨냈던 작가 자신만의 ‘기억과 증언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박완서 작품의 변모 양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서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의 작품 경향은 자기 경험이 소설로 발전된 자전적 소설을 일관되게 지향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²⁾ 그의 작품 세계는 주로 자신의 전쟁체험에 바탕한 개개인들의 삶의 문제에서부터 도시 중산층의 속물성 그리고 여성 문제와 죽음 극복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일관되게 지향해 나갔던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서사적 요건은 ‘가족’의 이야기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의 흥년』³⁾(1979) 역시 도시 중산층의 가정을 무대로 하여 가족구조의 변화를 역사적인 문제로 삼고 형상화했던 시대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은 대체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근거하여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의 내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점차 나아가 한 시대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규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⁴⁾ 즉, 박완서의 소설은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통해서 그 ‘가족’

1) 박완서, 「작가의 말」, 『단편소설전집』, 문학동네, 1999.

2) 박완서의 후기 작품 역시 간병기 형식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을 비롯해 어린 시절과 전쟁 중의 경험을 서술한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등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도시의 흥년』은 1975년 12월부터 1979년 7월까지 『문학사상』에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도시의 흥년 : 박완서 소설전집 2.3』, 세계사, 1993년에 의하며, 앞으로 본문 인용 시 권수(상/하권)와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4) 권영민,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 박완서 외, 『박완서 문학 앨범』, 웅진출판, 1992, 116면.

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과 그 시대의 정신적인 지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이야기이면서 대체로 대중소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도시의 흥년』은 하지만 이 시대의 대중소설이 대중적 요소와 함께 당시의 사회적 모순 역시 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0년대 신소설을 시작으로 성행하였던 대중소설은 1930년대를 지나 1960, 70년대 이르러서는 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의 대중소설이 다수의 독자 대중의 감수성과 부합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면서도 무엇보다 “부정하고 저항해야 할 것이 자신들이 허상으로 추구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의 논리이며, 그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⁵⁾ 함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어야만 할 사항이다. 박완서의 작품에서 ‘가족’이라는 주제의식 역시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주요한 특질이면서 또한 ‘가족’의 문제를 주로 사회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는 것은 그녀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도시의 흥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작품의 대중성과 중산층의 속물성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다룬 주제로 크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⁶⁾ 최근에 이

5)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하정일 외,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89면.

6)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이화진,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전략』,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배경렬,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67,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강인숙,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70년대의 서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도서출판 등지, 1997.

르러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접근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⁷⁾ 또한 이러한 연구 경향과 더불어서 기존에 행해져왔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작품 자체의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논의⁸⁾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작중 화자의 특성에 관점을 두고 『도시의 흥년』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주제 의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 ‘나’라는 작중 화자인 점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그런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 맺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

『도시의 흥년』은 한국전쟁 이후 불안정했던 시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지대풍 일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 해체의 과정을 서사적 골격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작중 화자이면서

한형구, 『서울 현대의 삶과 박완서 소설 : 『나목』, 『도시의 흥년』, 『휘청거리는 오후』, 『서울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9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7) 김은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박수현, 『박완서의 장편소설과 비평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8)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주인공인 ‘나’⁹⁾(지수연)는 이 집안의 막내로서 ‘나’의 가족은 물론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속물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며 “급조된 부르주아 가족의 흥성과 탐욕, 몰락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주체”¹⁰⁾인 것이다. ‘나’는 이런 인물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근대적 개인의 윤리의식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속물적 현실을 살피고 있다. 이렇듯 작중 화자이면서 여성 인물인 ‘내’가 이런 속악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주변인물들에 대한 속물성과 허위를 드러내기 위함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삶에 더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삶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인물이 자신의 사유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 해당 인물의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어떤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곧 ‘나’의 존재방식이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행동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삶이 모두 ‘나’의 시선에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각으로 침투된 그들의 행동 양식들은 ‘나’의 존재방식 전반을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중 화자이면서 주인공인 ‘나’의 시각과 존재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연관 맺고 있는 사회적이고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존재방식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

9) 『도시의 흉년』의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기존 자전적 소설에서 보여지던 작가의 분신과도 같던 ‘나’와는 다른 성격의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흉년』은 『나무』으로 등단한 이후 1970년대 들어 줄곧 보여주었던 자전적 소설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10) 김양선, 앞의 논문, 228면.

다.

이런 ‘나’의 존재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집과 가족 그리고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들의 성격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의 집은 “주거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상류층 흉내 내기에 집중되어 있는”¹¹⁾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파행적인 근대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화려한 카펫은 그 위의 응접세트와 관계가 없고, 응접세트는 그 옆의 사방탁자와 관계가 없고, 사방탁자는 그 위의 도자기와 관계가 없었다. 가까이 모여 있을 뿐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아무리 값비싸고 사치한 것들이라지만 이것들을 통일시켜 어떤 살아 있는 분위기를 만들 주인의 정신과 만나지지 못하니 잡동사니처럼 무의미했다.(상권, 40면)

위의 예시를 통해 보여지듯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을 마련한 엄마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다구”(상권, 42면)라는 반복적인 발화를 일삼으며 생활 영역에 걸친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맹목적 물질주의를 보여주는 인물이다.¹²⁾ 실제로 엄마는 ‘나’와 쌍둥이 오빠 이수빈의 교육과 입시에서도, 언니 지수희의 결혼 문제에서도, 아빠의 자작극이긴 했지만 세무 사찰과 같은 범죄에서도 모두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며 돈의 위력에 순응하고 공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1) 이화진, 앞의 논문, 307면.

12) 엄마의 이러한 욕망의 형태는 라캉의 ‘욕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캉은 주체를 결핍으로 보고 욕망을 환유로 본다. 그것은 주체를 대상에 대한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오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타자의식』을 갖게 한다.” 인용된 부분은 권태영,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3, 20-21면.

엄마의 이야기에는 적어도 연속극보다는 분명한 뼈대가 있었고 그 뼈대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다구」였다.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뼈대가 무엇에 의해 피등 피등 살찌기를 소망하고 있나를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 삼남매가 그 무엇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엄마의 소망을 배신하고 자유로워지는 걸 꿈꿀 때가 제일 즐거웠다.(상권, 42면)

할머니 역시 이 집안에서 쌍둥이 오빠 지수빈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그에게 무한한 익애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남아선호사상을 가장 제대로 체현하는 인물이다. 아빠 지대풍은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가장으로서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자 절름발이 첩과의 이중생활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외도도 모자라 첩의 오빠들을 휘둘러 가정을 파멸시키고 마는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로 나온다. 경제력과 권력의 맞교환으로 전략적인 결혼을 성사시키기에 이른 언니 지수희는 물론 '나'의 쌍둥이 오빠인 지수빈 역시 엄마의 맹목적인 돈이 제공하는 안락한 일상에 길들여져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나'의 가족 외의 다른 인물들에는 절름발이 첩과 서재호가 있는데, 절름발이 첩은 자신의 불구를 도구화하여 지대풍의 부당한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신분을 바꿔보고자 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서재호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경제력 있는 지씨 집안과의 결혼을 성공시키기에 이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지씨 집안의 몰락을 보고 언니 지희를 성적 함정에 빠뜨려 내쫓고 마는 처세술에 능란한 인물이다. 이렇듯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 내 신뢰가 부재한 현실을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¹³⁾

13) “이들 가족은 구성원 모두가 비정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릇된 욕망의 실현을 위해 불순한 음모에 공모하는 기형적인 근대 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용된

이러한 ‘나’의 가족을 비롯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은 ‘나’의 존재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셜 속 인물들의 존재방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이다. ‘나’의 성격과 내면 심리, 행동양식 등을 의미하는 ‘나’의 존재방식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행동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관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이중적인 존재방식’¹⁴⁾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무위적 삶을 과감히 떨쳐내려는 결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울퉁이고 나는 졸업했다. 그런 유치한 몸짓으로 상투적인 삶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만 있을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다.

그 고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나 자신의 삶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총장의 식사처럼 이 사회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내고 싶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고 싶다.

문제는 나를 에워싼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덤처럼 그 무가치한 것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데 있다.(하권, 201면)

이렇듯 ‘나’는 ‘나’와의 영향관계에 놓여 있는 주변 인물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들과는 다른 성향의 삶을 지향해 간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인물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

부분은 이화진, 앞의 논문, 302면.

14) 이것은 1960, 70년대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만들어졌던 소시민의 존재양상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소시민의 ‘이중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소시민은 그것 안에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모두를 함의하고 있다.

한 방도를 찾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고장”(하권, 231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품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형’으로서 이중적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나’는 ‘나’와의 영향관계에 있는 등장 인물들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릇된 욕망의 실현을 위해 파행적인 양상들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온갖 시련과 억압을 극복하면서 지나치게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성을 고수하려 노력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물론 ‘나’ 역시 섹슈얼리티의 방기나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적 욕망과 만나는 지점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것은 ‘쌍피 붙는다’는 할머니의 운명적인 저주를 비껴가기 위해 그리고 언니와 정략적인 결혼을 계획한 서재호를 파괴하기 위해 그와의 불륜 관계를 저지르는 것이나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값비싼 ‘마담 그레이스’의 옷을 거침없이 구매하는 것 그리고 대학 동기들끼리 즐기는 특수 고급층의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주체로서의 각성 과정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근대적 개인의 윤리의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은 작가가 ‘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이 작품의 주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과 같은 삶의 모순적 형태를 통해 1970년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였던 여러 파행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는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랐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선 알고 있지 못했다. 그걸 나 혼자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홀로 되고 싶었다. 할머니의 악담이 불길한 전설처럼 서린 고장에서 우선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이렇게 내가 꿈꾸는 자립은 조금도 허황하거나 거창하지 않았다. 내 분수에 맞는 소박한 것이었고, 내가 행복에의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만한 과정이었다.(하권, 231면)

이러한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은 이 작품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엄마에 의해 남부럽지 않은 월등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 받을 때조차도 그것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점, 엄마가 “목하 물색 중인 완전 규격품인 신랑감들”(하권, 59면)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엄마의 속물적 욕망을 비판했던 점 그리고 쌍둥이 오빠와 연애 중인 가난한 집 딸인 순정이를 도움으로써 그곳에 내재된 엄마의 빼놓아진 허위의식을 정확히 읽어냈던 점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나’의 행동들은 점점 더 무위적 삶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가족을 구해보고자 했던 ‘나’의 분명한 인식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부정적인 억압과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과는 다른 삶을 찾고 싶어 선택하게 된 이중적 존재방식은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참된 삶의 가치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내가’ 현실에 대응하는 이중적 존재방식이 ‘나’와 관계맺고 있는 주변인물들에 의한 영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과의 비판적 거리두기는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3. ‘나’와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

『도시의 흥년』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시대가 혼란한 틈을 타 그 속

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가진 서울의 중산층 가족의 상승과 몰락을 그리고 있다. 그러한 가족의 상승과 몰락의 한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내며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는 이가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주변인물들로부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긍정적인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이중적 존재방식을 드러낼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데, 따라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억압과 욕망의 기제 속에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시도하게 된다.

나는 내가 편안히 몸담고 있는 풍요와 익애의 세계를 벗어나기를 얼마나 꿈꾸었던가. 그 허위의 외기둥이 받치고 있는 터무니 없이 으리으리한 집구석을 도망치는 꿈이야말로 매일 꾸어도 퇴색하지 않는 나의 가장 신선한 꿈이었다.(하권, 91면)

그리하여 ‘나’는 ‘나’의 이러한 이중적 존재방식으로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나’의 비판적 관계맺기 양상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과의 면밀한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의 비판적 관계맺기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나’와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의 양상은 낱자마자 진자리에서 쫓겨났던 ‘나’의 특수한 존재 양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후 주변인물들에게 보이는 ‘나’의 행동 양상을 통해서도 그 비판적 심리를 확인하게 된다.¹⁵⁾ ‘나’와 가족들간의 비판적 관계맺기는 그들 모

15) “그것은 바로 진자리에서 추방되었던 그녀의 타자성에서 비롯된다. 수연은 이모 집에서 살다 6년 후 부모(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추방’은 할머니의 배타적인 통제의 시선으로 변주됨으로써 여전히 ‘집 없음’의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 인용된 부분은 정혜경, 앞의 논문, 84면.

두에게 “멀미”(하권, 81면)같은 걸 느낀다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의 허위를 허위로 의식하고 있지조차 않”(하권, 81면)는 극단적인 허위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엄마에게서, 절름발이 첩과의 비정상적인 외도를 통한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아빠에게서, 사랑없이 오로지 “돈하고 권세하고 상사를 하다가 서로 결핍”(상권, 303면)한 것과 같은 결혼을 추구하는 언니와 그의 신랑 서재호에게서, 엄마와 할머니의 익애 속에서 자신의 주관과는 상관 없이 허우적대기만 하는 오빠에게서 그런 “멀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작품의 결말에 이르러 대부분 파국을 맞고 있다. 이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욕망은 욕망의 결여, 공백, 부재를 표상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그렇게도 꿈꾸며 다짐했던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기표처럼 끊임없이 미끄러짐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¹⁶⁾ 욕망은 그것의 부재를 쫓을 뿐이다. 언어 안의 기표와 기의가 끊임없이 어긋나는 것처럼 이들이 찾는 현실 속 욕망 역시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미끄러짐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와 그들과의 관계맺음은 그들로부터 ‘벗어나기’와도 같은 비판적 관계맺음으로 진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나’의 심리는 “그때의 나로부터 지금 나는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 걸까. 나를 자유롭게 하라. 부디 나를 자유롭게 하라.”(하권, 59면)라는 외침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나’의 절박한 절규는 이 주변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관계맺기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물질적인 가치가 최상에 놓이고, 바로 그 물질적인 것에 의해 인간의 가치

16) “시니피에는 시니피앙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며 고정된 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라캉이 강조하는 점이다.” 인용된 부분은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117면.

와 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가족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도 남아 있지 않은”¹⁷⁾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하권, 357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때의 나로부터 지금 나는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 걸까.
 나를 자유롭게 하라. 부디 나를 자유롭게 하라. 서재호가 목
 하 물색 중인 완전 규격품인 신랑감들로부터, 엄마가 기다리
 의사와 공모해서 나에게 부탁해준 인공의 순결로부터, 앞으로
 보장된 막대한 저축금으로부터, 엄마의 익애로부터, 그리고 할
 머니의 불길한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라.(하권, 59면)

1970년대는 다소 강압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서구 자본주의가 유입되던 시기로서 이로 인해 개인들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던 시대였다. 그와 함께 도시적 삶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의 물질주의 역시 팽배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나’의 가족과 그 외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사회의 일상성은 도시적 삶이 추진되면서 생겨나게 된 소시민의 허위의식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¹⁸⁾ 『도시의 흉년』에서 이러한 소시민성의 문제점을 크게 자각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다. 소시민성이 내면화되기 전에 그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를 통해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인 주변인물들과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나’의 진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1993, 316면.

18) 소시민성은 우리 사회의 발달 과정에 따라 점차 심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였는데, 1930년대에 시작되었던 소시민화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다소 강압적인 정치 배경과 때를 같이하며 개인들의 정체성 혼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도시적 삶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풍조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자주 아버지가 엄마를 보는 시선 속에서 정겨운 찬탄을 읽을 수조차 있었다. 어떻게 수희 같은 딸을 낳아주었노, 하는 것 같은. 실제로 아버지의 손이 엄마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민망한 전경을 목격한 것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도 이제 많이 늙었다. 난봉을 피다가도 조강지처와 자식이 있는 떳떳하고 아늑한 울타리 속에 그리울 나이다. 애욕보다 식욕을, 모험보다는 안락을 취할 나이다. 하물며 그가 속한 울타리 속에 중늙은이의 탐욕이 좋아 할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바에는.

그것이 바로 속물스러운 남자들이 밟는 정규코스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야말로 속물스러운 남자 중에서도 속물이다, 라고 나는 단정했다.(상권, 357면)

이렇듯 이 주변인물들과의 ‘나’의 비판적 관계맺기는 엄마의 그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나’를 확실히 그들에게서 떼어 놓게 하는 사건이 생김으로써 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 사건은 우연한 사고로 지하실 차고에서 쌍둥이 오빠와 ‘쌍피 붙었다’는 누명을 쓰게 된 일이었는데 결국 ‘나’는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며, 이후 ‘나’의 집은 풍비박산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좀 더 뚜렷한 현실인식을 가지게 된 ‘나’는 ‘내가’ 놓여있는 허위에 찬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좀 더 ‘나’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생활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 다른 삶의 방향을 살기 위해 ‘내가’ 다시 결심한 일은 데모를 하다 구속된 구주현과의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가 하던 야학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등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내가’ 다시 시작한 일은 그 동안 환상속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던 무위적 삶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용감한 혼자로서의 ‘나’를

꿈꾸는 것이었다.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바로 인식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으로써 ‘나’는 ‘나’의 남자친구인 구주현과의 결합을 위해 낙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나’의 가족이나 그 외 인물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끝내는 “화해의 자리”(하권, 391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별이 담긴 깊고 깊은 두레박 우물처럼 나를 덮어놓고 현혹시키는 눈은 이미 아니었다. 다시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엄격한 태도에 나도 덩달아서 응석기없이 사무적으로 말했다.

『못 믿겠으면 온 동네 사람 앞에서 맹세해도 좋아. 자기는 사모관대하고 나는 족두리낭자하고 마당에 차일 치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모아 국수잔치를 하면 될 거 아냐. 나도 내가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사랑한 식구들과 친척들을 다 초대할 거야. 그 자리가 나에게도 그들과의 화해의 자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하권, 391면)

이러한 ‘나’의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는 이 작품에서 ‘나’에 의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자립”¹⁹⁾(하권, 253면)이라는 단어와도 함께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의 비판적 반속 지향을 단적

19)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서 이 “자립”이라는 단어는 ‘나’에 의해 매우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그 외 인물들 모두에게서 달아나고 싶다는 나의 무의식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떡할 작정이야?』 『자립할 작정이예요.』”(하권, 207면), “차라리 고아이고 싶다. 고아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립해야겠다. 자립의 꿈만이 지금의 나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하권, 229면), “자립을 위해 동분서주한 때문도 있어서 한동안 구주현을 면회 가지 못하고 있던 차였다.”(하권, 245면), “내 자립의 꿈은 처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 나의 꿈대로라면 나는 내 자립을 위해 내가 태어난 고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게 버림받았나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하권, 329면)

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립”이라는 단어는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를 드러내기 위한 한 방식적 차원에서 이 작품에서 되풀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보다는 내가 그런 일을 통해 여지껏 타의에 의해 길들여진 자신을 변경시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었다”(하권, 386면)라는 ‘나’의 고백은 그 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계맺기를 한 결과로서의 인식이 ‘나’의 차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징적인 언설로 볼 수 있다.

‘나’를 가두었던 태생적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동안 타인에 의해 허위로 부풀려졌던 모습 역시 지움으로써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가 보여주고 있는 “자립”은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를 시작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었다.

4. 결론

본고의 목적은 『도시의 흉년』의 주제의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 ‘나’라는 작중 화자인 점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나’의 이중적 존재방식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그런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도시의 흉년』의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기존 자전적 소설에서의 ‘나’와는 다른 성격의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집안의 막내로서 ‘나’의 가족은 물론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속물적 인물에 대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작중 현실을 살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한 ‘나’는 ‘나’와의 영향관계에 놓여 있는 주변인물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들과는 다른 성향의 삶을 지향해 나간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도를 찾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품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형으로서 이중적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한 존재방식으로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물들과의 비판적 관계맺기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누리 왔던 무위적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자립’의 한 형태로써 남자친구인 구주현과 그의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향이라는 농촌의 푸근함은 도시의 속물적 현실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완서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혹독하게 겪은 역사적 현실을 소설화한 작가로 유명하다. 여성 작가였던 만큼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으로 반세기의 근대사를 사실적이고 진실되게 그려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들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 정신을 담지하게 되면서 작가 자신만의 역사가 아닌 우리시대의 공동의 역사가 돼 주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완서, 『도시의 흥년 : 박완서 소설전집 2, 3』, 세계사, 1993.

2. 단행본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도서출판 등지, 199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1993.

권택영,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3.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문학동네, 1999.

박완서 외,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하정일 외,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3. 논문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15-234면.

김은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249-273면.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박수현, 「박완서의 장편소설과 비평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03-132면.

배경렬,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67,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119-143면.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이화진,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전략」,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287-312면.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육집’ 표상」,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1, 71-91면.

한형구, 『서울 현대의 삶과 박완서 소설 : 『나무』, 『도시의 흥년』, 『휘청거리는 오후』, 『서울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9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157-190면.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of “My” Relations in
Park Wansuh's 『*Year of Famine in the City*』

Chae, Hui-Yeong

Park Wansuh wrote many biographical novels based on her experiences from her first work 『*The Naked Tree*』(1970) to her series 『*Mother's Garden*』.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changing patterns of her works in a consistent way, but her creative tendency seems to have been consistently oriented toward biographical novels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her 『*Year of Famine in the City*』(1979), which has some distance from her consistent biographical works since she started her literary career, to figure out the limping modernity of the South Korean society in the 1970s that she tried to reveal and the family history of the main character to represent it in a compressive manner.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focused on the fact that “I,” the speaker in the novel, displayed the closest connections with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novel, looking into the process of “my” double existence style being depicted in the work and the way of my establishing critical relations with people around me revealed by “my” lifestyle.

“I,” the speaker and main character of 『*Year of Famine in the City*』,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I” in her biographical novels.

Being the youngest child in the family, “I” maintain a critical viewpoint of all the people around “me” as well as “my” family. I keep an objective eye on snobbish characters in the novel,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novel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 create a somewhat different atmosphere from people in influential relations with “me” and pursue a life of different tendency from them. I am a positive character having the idea that I should get away from them even though I have not found a special way to do so, displaying a double existence style.

Based on my existence style, “I” succeed in making critical relations with the people surrounding “me” by growing out of my old idle life boldly and achieving self-reliance. As a form of self-reliance, I choose to move to the hometown of my boyfriend Gu Ju-hyeon. Here, the rural hometown with its warmness is interpreted to represent a space in contrast with the snobbish urban reality.

Key words: “I” as the speaker, double existence style, making a critical relation, Lacan, desire, self-reliance

투 고 일: 2018년 5월 18일 심 사 일: 2018년 5월 20일-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18년 6월 26일